



3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콜라텍에서 피크타임인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짝을 이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댄스홀은 한산한 모습이다.

‘노인들의 낙’ 콜라텍도 불황 한파 우울한 ‘황혼의 블루스’만 흐른다

“물가가 너무 올라 밥 한끼 사먹는 것도 힘들어요. 100원짜리 동전도 아껴야 할 상황에 어떻게 노는데 돈을 쓰겠습니까.”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광주 지역 노인들의 삶마저 굳게 닫게 만들고 있다.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여가생활 지출을 줄이면서 입장료 1000원으로 저렴한 ‘노인들의 성지’ 콜라텍(2023년 1월 13일자 광주일보 7면)마저 발걸음이 뜰 줄 것이다.

콜라텍은 콜라와 디스코텍의 합성어로 1990년대 청소년들이 춤을 추고 노는 문화 공간으로 시작됐다. 2010년대부터 실버들의 특별한 공간으로 각광받았다. 노인복지센터, 경로당에서는 즐길 수 없는 특별한 여가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콜라텍 또한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인들이 춤을 추고 운동을 하면서 사람도 만날 수 있다며 하루에도 수백명씩 찾아오는 ‘핫플레이스’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콜라텍 입장료 1000원조차 노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콜라텍의 식당은 ‘피크 타임’(점심시간)에도 텅텅 비어 있었다.

이 콜라텍은 11월 한 달 동안 입장료 무료 행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오후 1시가 넘어가도록 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 300~400여명이 몰려들어 북적이던 홀은 20여명만이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고 있을 뿐이었다.

광주 입장료 1000원조차 아껴

하루 300~400명 북적이던 곳

절반 가량 급감하며 ‘된서리’

입장료 무료 행사에도 발걸 뚝

엎주 ‘적자 눈덩이에 폐업할 판’

15년째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오금자(아·73)씨는 “지난해보다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콜라텍 내부 식당과 카페 모두 일반 가게들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500원짜리 커피 한 잔 뽑아 먹는 것도 부담되는 노인들이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보통 콜라텍 입장료는 1000~2000원이고 소주·막걸리는 2000원, 2인 메뉴를 1만원 안팎에 판매한다.

오씨는 “콜라텍에서 친구나 지인이 음식을 사주면 자신도 밥을 사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돈을 아껴야하는 실버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곤란할 바에야 집에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빨간 셔츠에 푸른색 넥타이로 한껏 갖춰입고 콜라텍을 찾은 김모(78)씨는 “원래 노인연금이 나오는 24일 쯤에는 콜라텍이 붐비고 월초에는 한산하긴 하다”면서도 “올해는 유독 나오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 물가가 올라 밥 한끼 사먹기도 힘든데 놀러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또 다른 콜라텍도 사정은 좋지 않았다. 문을 연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최신식 설비를 갖춘 곳’이라며 노인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던 이곳은 어느새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사장 홍기연(62)씨는 “애초에 콜라텍 운영으로 큰 돈을 벌 생각도 없었지만 최근 물가가 너무 올라 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입장료나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저렴한 식료품을 쓸 수도 없으니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콜라텍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15억여원의 적자가 난데다 식료품, 전기, 가스 등 물가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다는 것이 홍씨의 설명이다.

더구나 콜라텍은 생활체육시설이 아닌 유흥 시설이나 자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적자가 누적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씨는 “입장료를 아예 안받는다해도 연금 아껴서, 자식들한테 용돈 조금 받아서 오시는 분들 이다보니 가방이나 옷가지 등 짐 보관료(1000원)도 못내고 2000원짜리 막걸리 한 병 못 마시고 가는 분들이 태반”이라며 “가게가 힘들다고 당장 콜라텍 운영을 그만두면 형편이 넉넉지 않은 노인들은 어디로 가서 놀아야 하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증인들의 입 주목

첫 재심 재판 열려...강압수사 의혹 검사·수사관 놓고 검·변 공방

15년 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수사 당시 강압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서 진실의 입을 열지 주목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강압수사’ 입증과 반박이라는 상반된 목적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3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 심리로 살인과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4)씨와 딸 B(40)씨의 첫 재심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심재판은 이들 부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재심이다. 재판부는 두 부녀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에 대해 검사의 항소제기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

검찰은 “부녀의 자백뿐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춰 볼 때 공소 혐의가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1심의 판결은 사실관계를 잘못 봤고 관련 법리 해석에도 오해가 있었다”고 불복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문맹인 A씨와 경계선 지능을 가진 B씨가 사회적 약

자라는 측면을 악용한 강압수사의 전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재판부에 당시 부녀를 수사했던 검사와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변호인은 청산가리 특성과 당시 수사상황에서 이들 부녀의 심리 상태를 증언해줄 수 있는 교수 2명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강압수사를 밝힐 수 있는 증인인 당시 검사 등의 채택이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 특성을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재심 개시를 결정해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흥서 승용차가 추돌...경운기 운전자 사망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경운기 운전자가 숨졌다.

장흥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장흥군 용산면 한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다.

B씨의 경운기는 A씨가 사고충격으로 전복됐고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햇빛 때문에 경운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라는 점을 감안, 과속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목포 마사지 업소에서 마약 투약 40대 긴급체포

목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목포경찰은 4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업소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2개를 확보하고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A씨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 외의 마약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여수 모텔서 담배꽂초 떨어져 불...2명 치료

여수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2명이 대피하고 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3일 여수소방과 여수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여수시 봉산동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모텔 내에는 4명의 투숙객이 있었으며, 불이 난 객실에 묵고 있던 A(51)씨가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다른 1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객실 일부만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담배를 피우다 꽂초가 이불에 떨어져 불이 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방화와 실화 모두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